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믿음의 유산

나는 두 아들에게 일찍이 말했다. “유산은 기대하지 마라. 나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드리고 갈 거다.”

이것은 내 진심이다. 대신 나는 아들들에게 그것보다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긴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 믿음은 먼 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 노라”는 말씀이 있다. 디모데의 신실한 믿 음은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 았다. 사무엘도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 어머니의 믿음대로 제사장 밑에서 성장했다. 그들이 얼마나 귀한 유산을 받았 는지는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물질의 유산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믿 음의 유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 까지 누리게 된다.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상속받은 이삭이, 이삭에게서 믿음을 물려 받은 야곱, 야곱에게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 받은 요셉의 축복이 그와 같지 아니한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 까?” 하고 기자가 묻자 록펠러는 말했다. “부모님께 유산을 물려받아서입니다.” 기 자는 “부모님이 부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 는데요?” 했고, 록펠러는 “부모님은 가난한 농부였지만, 내게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십일 조를 하라 하셨고, 주일에는 제일 앞자리에 앉으라고 하셨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맞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신다. “여호와 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 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시 25:12~13).

자녀에게 돈 물려주려고 못 먹고, 못 자고, 못 쓰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라. 그 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준 것보다 더 큰 복 을 그들에게 주시리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건축 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 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신6:6~11).

영적 기반시설은 방언기도이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기도원의 봄은 시끄 러운 속세의 풍파가 범접할 수 없는 다른 세상 같았다. 이 좋은 계절, 천국잔치가 열리는 기도원에서 하나님은 윤은경 권 사를 부르셨다. 지병으로 오래 고생하는 가운데에도 항상 주님의 성전을 사모했 던 윤권사를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수고 를 그치게 하신 것이다. 목사님 말씀처럼, 오늘 만난 사람, 내일 다시 본다는 보장이 없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주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 야 한다는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하리라. 목사님은 춘계산상집회 첫날 첫 시간에 방언 기도의 중요성을 유독 강조하셨다. “선진국이 왜 선진국입니까? 인프라가 잘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기반시설을 방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순 절 마가다락방에 처음으로 이 은사를 주 신 이유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 반조건이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가 40년 목회에 변함없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방언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언기도는 악한 마귀도, 귀 신도,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고 오직 하나 님과 나만이 교통할 수 있는 비밀언어, 천 국방언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 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 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고전14:2).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기도로 살 때는 부족함 없 이 권세 있는 삶을 살았는데, 점점 시들

해지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고 전2:10)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속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지뢰탐 지기가 땅속의 지뢰를 찾아내듯,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 의 눈이 열립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의 뜻으로 말하고 행동하기에 넘치 못할 벽이 없고, 내 삶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방언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남 이 어떻게 볼까 염려합니까? ‘이래 봐도 내가 배웠는데, 명예가 있는데’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 까? 어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놀라 운 비밀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이



춘계산상집회(4월 28일~5월 1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사회기반시설, 즉 도로, 항만, 공항, 발전 소, 정보망 등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후진국일수록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하죠. 박대통령 시절, 독일의 아우토 반이라는 선진적 도로망을 보고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 으로 오늘날 우리나라는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지방 어디를 가도 도로, 교통, 전기, 인터넷 등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영적 기반시설 이 잘 갖춰져 있어야 우리 신앙이 성장해

해지고, ‘꼭 그래야 하나’ 하며 방언기도 가 떠나니 귀신의 밥이 되어 그 삶이 피 폐해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떨어졌나 잘 생각해보세요. 국내는 물론 해외에 나가도 ‘목사님은 어떻게 40년 전 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 능력이 떠나 지 않으십니까?’하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 니다. 내 답은 딱 하나입니다. 방언기도를 늦추지 않기 때문이라고. 나는 늘 말하지 만,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꼭 기도 합니다. 집회가 있을 때는 하루 7~8시간 기도합니다. 내 기도의 80~90%는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기도로 성령으로 충만

아닌 세상의 악하고 미련하다 하는 자들 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고전1:26~29). 내가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식하게 믿어 라!’ 내 생각, 내 논리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식하게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 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악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고전1:25).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나 자신을 돌아보 고 점검하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 는 길은 회개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 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야외식당



기도원 대성전



방언기도를 독려하시는 목사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16:15~20)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전하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며 세 사람에게 각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회계하자 다섯 달란트 가졌던 자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다섯 달란트 이득을 남겨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마찬가지로 밤낮을 일하여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이를 받아 든 주인이 화를 내자 그는 이리저리 주절주절 핑계를 댑니다. 주인은 핑계로 인하여 더욱 더 리끝까지 화가 치밀어서 “악하고 게으른 자의 것을 빼앗아 다섯 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어라.”라고 명했습니다.

주인이 왜 불같이 화를 냈을까요? 이익을 남기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만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장사를 하다가 장사에 미숙하여 한 달란트를 까먹었다면 주인은 절대 화내지 않았을 겁니다. ‘좋은 경험했구나.’ 했을 것입니다. 주인은 게으른 그에게 화가 났고, 더욱이 그런 그가 핑계나 대고 있으니 더욱 노해서 ‘악하고 게으른 놈, 나가!’ 한 것입니다.

게으름은 악이요 인생의 독소다

맞습니다.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죄는 나를 죽이는 것이요, 악은 남을 해치고 죽이는 것일진대, 게으른 자가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잠10:4),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고(잠12:24),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잠13:4), 패가하는 자의 형제(잠18:9)이니 자기를 죽이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잠10:26) 했으니 남을 해치고 죽이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마25:30)고 하신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암(癌)이 왜 무섭습니까? 암은 사방이 입이라 무조건 전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은 초기에 완전히 도려내야 합니다. 게으름도 당연히 전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5:6)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룩이 뭘니까? 악한 영향, 곧 게으름, 타락, 불신앙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전이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잠13:20)는 말씀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

다는 말씀으로, 결국 게으른 자와 함께 하다 보면 게을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암을 도려내듯 도려내야 합니다. 혈연, 학연, 지연을 막론하고 잘라내야 단체가, 교회가, 국가가 삽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주인이 무화과원지기에게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과원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과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어나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눅13:8~9).

이 과원지



총회장 이초석 목사

기는 3년 동안 게을렀습니다. ‘때 되면 열리겠지.’ 하며 신경도 안 썼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겁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무책임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게으름의 본래 뜻은 ‘돌보지 않는다’로 ‘무책임’을 뜻합니다. 무책임하기 때문에 게으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세차하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차를 주니까 열심히 세차합니다. 자기 차니까 책임감이 생긴 겁니다. 성경에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잠27:23)고 하신 것은, ‘네 양떼이니 책임감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제가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백여 개가 넘는 국내교회를 돌볼 수 있는 것은 책임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 양떼가 행여 다칠세라, 아플세라, 누가 채갈세라 살펴야 하기에 부지런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를 심고 포도를 딸 수 없고, 엉덩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마7:16). 게으름을 심고 부귀영화를, 성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기회가 와도 그 기회가 그림의 떡이 되고 말뿐입니다.

당연히 부귀영화와 성공은 부지런한 자의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고(잠10:4), 부지런한 자는 풍족하게 되고(잠13:4), 부지런한 자는 사람을 다스리게 되며(잠12:24), 왕 앞에 설 것이라고(잠22:29)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이 부자로 산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더불어 그들이 부지런했기 때문에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지런이란 열쇠는 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빈궁한 나라

라였던 대한민국이 한 세대만에 세계 10대 부국이 된 것을 보고 세계는 ‘있을 수 없는 일’, 혹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부지런을 떨쳐 배우고 일한 결과입니다. 새마을운동을 하며 별 보고 나가 별 보고 들 어온 우리 부모님들, 피난 중에도 아이들 책부터 챙기고, 재봉틀을 돌리면서도 자식을 학교에 보낸 우리 부모님들 덕분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딤후4:15)고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전심전력하면 발전하고 성공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도, 기업도, 개인도, 교회도 동일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밭에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누가 적게 심나요? 게으른 자입니다. 누가 많이 심나요? 부지런한 자입니다. 인생의 밭에, 인생의 포도원에 잡초와 가시덤불이 덮여 이리저리 찢리고,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까?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일어나 잡초를 거둬내십시오. 앞에 언급한 과원지기처럼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결단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배우고, 찾으십시오. 반드시 열매가 보일 것입니다.

인생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시간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성경은 “때를 아끼라”(엡5:16)고 했는데, 매일 빈둥빈둥 놀고, 해가 중천에 뜨도록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하고, 심지어 차려놓은 밥상에서 수저 올리기도 귀찮아하는 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겠고, 그런 자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와 동업하면, 그런 자와 결혼하면, 그런 자와 목회하면 공멸하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부지런해야 받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8:5~7) 하였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7:7)라고 하셨습니다. 즉 영·혼·육이 부지런하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암요, 되다마다요.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핑계 대지 말고 방법을 찾아라

자본이 없습니까? 배운 게 없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습니까? 그러나 최고의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운동하고,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부귀영화가, 건강이, 그리고 천국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게으른 자신과 싸워 이겨내세요. ‘~ 때문에’라고 변명하지 말고, ‘밖에 사자가 있다’고 핑계 대지 말고, ‘게으른 나’와 싸워 이겨 부지런함이 몸에 배게 하세요. 그러면 행운도, 성공도 당신에게 달려올 것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렁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잠6:6~11).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서는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천지간에 부여주셨다. 특히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저주와 사망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있다. 행복이 눈앞에 다가와 거의 잡힐 듯해도 자기 기대와 약속이 성사되기 전에 무너져 버리기도 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것을 피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어 부지런히 애쓰고 애쓰다가 그로 인해서 유치장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잘못함으로 자녀가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이처럼 세상에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생존경쟁은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 이쪽 사람이 머리를 써서 상대방 주머니에 있는 돈이 흘러 들어오게 하려고 애를 쓰고 지혜를 짜내는 것 이상으로 저쪽 사람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상대방을 넘어뜨리려 한다. 치열한 경쟁, 두뇌작전이 살벌하다. 그렇기에 선불리 행동하면 서로가 망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사회다.

농사꾼이 애써 거름을 주고 수고해서 수확을 기다리지만 그것을 창고에 들이기도 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있듯이, 사람들의 꿈이란 것은 중도에 좌절되고 무너져가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 성공하고 영원히 잘 살기를 바라시기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

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요 3:16).

복과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시고, 사망과 저주는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에게 준비된 것이다.

자기의 욕심을 부리는 자는 사망의 도전을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도를 지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순수하여 내 고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택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

지금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망하고 만다. 생명과 평안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택하기에 우리는 재미있는 일이 많아도, 갈 곳이 많아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낯을 뵈고 예배드리는 것이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오는데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네가 택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이기심,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결단을 통해 주님의 인도함으로 승전보가 있어야 한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려서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신30:19~20).

신기류 목사

:: 신앙논객 ::

왕(王)의 자격

대한민국 헌정사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순간이 다시 한번 재현되었다. 국민의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파면된 것이다. 이유야 어찌 됐든, 또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자체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것이다. 고로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키 어렵다.

사무엘상 8장에는 늙은 사사 사무엘이 그의 자식들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데, 그들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자 백성들이 불만을 품고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온다. 사무엘이 상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삼상8: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지 않으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런데 사울은 재임기간 중 주권자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 자

기를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의 말씀에 역행했다. 하여 하나님이 그를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평가까지 받게 된다. 그 결과 그는 파면되었다.

그러나 다윗은 주권자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행13:22)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왕이다.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었고, 성전 건축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기꺼이 포기했다. 용맹스럽게 잘 싸워서, 지혜가 충만해서가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 뜻에 합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가?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주권자의 뜻을 거스르면 파멸뿐이다.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영원한 복락을 누리자.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에벤에셀의 은혜

이스라엘이 대적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둔 날,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이라 불렀다(삼상7:12).

내 삶도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또 한 분, 나의 어머니가 계시다.

나는 철저히 어머니의 기도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자식을 위해 나보다 많이 기도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하실 만큼, 어머니는 하나뿐인 딸이 잘 되기를 밤낮으로 간구하셨다. 매일 아침 들려오는 방언 기도 소리를 알람 삼아 눈을 떴고, 그 눈물의 기도가 내 삶을 지켰으며, 이제는 가장 복된 길을 걷게 되었으니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나는 얼마나 복있는 사람인가? 그랬던 철부지는 어느

덧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나이가 됐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잠23:25)는 말씀대로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성실하게 살았고, 자주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다. 내 입에 맛있었던 곳이나 근사한 경치의 카페라도 갈 때면 눈을 반짝이는 어머니를 보는 것이 참으로 행복했다. 다만 평범한 일상에서 떨어진 딸이 된 것에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내 어머니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한 것을 본받아 올해에는 지금까지 길러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도록 해야겠다.

김혜리 교육전도사
joyjoy222@hanmail.net



:: 낮은 울타리 ::

오직 예수뿐이네

저에게는 문화생활을 아주 적극적으로 즐기는 친구가 있습니다. 페스티벌과 콘서트도 다니며 누가 봐도 재밌고 신나게 삶을 짝짝 채워 사는 친구인데요. 얼마 전 그 친구에게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감정적으로 많이 우울해 약속도 더 잡고, 재밌는 곳도 더 자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 종일 웃다가도 집에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재밌는 걸 보다가도 핸드폰을 끄면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제 친구의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교회를 나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세상 것들은 물론이고, 친구인 저도 그 마음을 치료해주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제 말에 심드렁하게 답했지만, 저는 제 친구가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완전한 평안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능 프로그램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힘들 땐 그런 프로그램들이 당장 저를 깔깔 웃게는 만들어도, 저를 편안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다. 제가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경

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 눈을 감고 예수님을 떠올릴 때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 모든 기도 제목과 복잡한 생각들을 다 접어놓고 일단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눈을 감고 내 주변에 사람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주변을 꽉 채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의 문제들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만이 저를 채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저를 다시 강하게 합니다.

세상에 날 즐겁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위로가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완전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에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뿐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14:27).

장수정

:: 간중 ::

:: 신앙에세이 ::

준비하시는 하나님



썬웨이 본사 로비에서 다이징민과 함께

조순(전 국무총리/서울시장)의 정무특보 시절인 1998년 4월, 중국 강소성 절강성의 기업인 20여 명이 서울시를 방문했을 때, 저는 그 행사를 주관하면서 중국 강소성 연청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중 핵심 구동장치인 감속기 등을 생산하는 ‘썬웨이’라는 회사의 ‘다이징민’이라는 젊은 회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 중국 전 인대위원(국회의원)을 두 번씩 연임하였고, 그의 기업은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에도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종업원은 2만 명이 넘고, 당시 회사에는 호텔, 병원, 초중고교도 있는, 우리나라의 현대 모비스 같은 회사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대한민국 최초로 ‘주식회사 정동성 골프투어’라는 골프 전문 여행업을 시작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에 연청서 7시간 차로 이동하고, 다시 상해~하이난을 비행기로 3시간을 날아와서 하이난 성장 여유국장, 호텔 골프장 사장들을 일일이 인사시켜 주면서 ‘정동성은 내 한국 친구다.’ 하며 필요한 모든 인맥을 연결해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제가 업무차 중국에 가서 문제가 있으면 항상 자기 일처럼 북경, 상해, 심양, 광저우까지 찾아와 무수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제가 신학교 재학 시절 선배들 졸업여행 차 중국에 갔을 때도 우리 일행에게 최고의 만찬을 열어 우리를 예수님 섬기듯이 극진하게 섬겨준, 저는 35년 지기 친구가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22일, 청소년 수련회 준비 봉

사로 기도원에 갔는데 총회장 목사님께서 저에게 몽골로 가서 일 하라고 하시면서 하루 7시간씩 몽골어를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차라리 말도 알고, 글도 알고, 사람도 아는 중국을 가라시면 좋겠는데 왜 하필 몽골을 가라하시냐’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쯤 지나 광주 최 권능 목사님과 함께 광주의 어느 중국 음식점으로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 그 식당 주인과 종업원이 모두 중국 사람인지라 제가 중국어로 이것저것을 물어도 보고 주문도 했는데, 이를 본 최 목사님이 ‘우리, 중국으로 가게 지금부터 기도하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 총회장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계신다기에 뵈려고 기도원에 갔다가 총회장 목사님과 함께 지교회를 둘러보고, 다시 기도원으로 오는 길에 최권능 목사님 차에 총회장 목사님과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승한 최권능 목사님이 제가 중국말을 잘한다고 운을 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래? 그럼 검증을 해 봐야지.” 하시곤 중국에서 공부한 손자와 먼저 대화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신학교 중국어 교수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업여행 때 인솔지였던 부산의 이구원 목사님께 전화해서 ‘정동성이 중국어 잘하는 것 맞나?’고 확인, 재확인하셨습니다. 모두에게 검증이 끝나자 “그럼 중국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은 우리가 5일 전에 기도했는데 응답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15년 전 입당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이곳에서 10년 훈련받고 중국 선교 가기를 원한다’고 총회장 목사님 앞과 성도님들 앞에서 선언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중국 친구 다이징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중국 체류 비자가 필요한데 중국 기업의 초청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니까 즉시

초청장을 보내주었고, 그 초청장을 근거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체류 M비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영사가 중국에 다이징민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 확인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3년 체류할 수 있는 M비자를 발급해주면서 제게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중국어가 완전하지 못하실텐데 어떻게 중국에 저런 고관대작 친구를 두셨나요?” 저는 이렇게 영사에게 답했습니다. “너는 머리로 저런 사람을 얻고자 하지만 나는 가슴으로, 즉 진심으로 저런 사람을 친구 삼기 원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영사는 내 말에 공감하며 비자를 제여권에 정성스럽게 붙여줬습니다. 요즘 35년 전 그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 보면서, ‘하나님은 35년 전에 미리 아시고 이 친구를 내게 붙이셨구나. 중국 선교를 위해 돕는 자로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를 붙여서서 교제케 하셨구나.’ 생각하니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10년 전 중국에 갔을 때 연청 파공시의 아름다운 공원 내에 3천석 규모의 예배당을 보았습니다. 유럽풍으로 멋지게 지어놓은 예배당은 공산당의 허가를 받지 못해 예식장으로 쓰고 있다고 하면서 다이징민의 친구인 연청시 공안국장이 ‘이거 너 줄게. 교회 하라’고 하여 내가 단에 올라가 두 손 들고 축복한 사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4월 20일 부활주일에 창립 15주년 기념 및 중국 파송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제 총회장 목사님께서 바라고 꿈꾸시는 대로 천안문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정복자라고 외치는 그 날까지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35년 전에 저를 위해 예비해주신 하나님께 실망시키지 않도록 남은 인생을 걸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정동성 목사

어린이

나도 어린이였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엄마였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멋진 사람은 아빠였다. 편식을 많이 해도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었고, 아빠는 뭐든지 척척, 못하는 것이 없는 맥가이버였다. 온종일 어두워질 때까지 친구들과 노는 게 그렇게 즐거웠던 때가 있었고, 아이스크림 하나에, 라면탕 하나에 그렇게 행복해하던 때가 있었다. 어둠을 무서워해도 망토만 두르면 날 수 있는 초능력을 상상했고, 고추잠자리에 실을 묶어 달렸고, 연을 잡고 신나게 뛰던 때가 있었다. 자전거만 있으면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모든 마음을 다 주는 친구가 있었고, 친구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밤에 잠이 잘 왔고, 감정선이 복잡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대로 또 흡수하였다. 한 밤, 두 밤 세는 간절함이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의심보다도 신기해하였다. 미숙하지만 아름다웠던, 순박하고도 순수했던,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때, 나의 어린 시절. 우리 모두는 그렇게 어린 아이였을 때가 있었다.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어린이날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시 어린이가 되는 상상을 해본다. 마음과 생각이 육신을 따라가는 것일 뿐, 우리 영혼은 나이를 먹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막10:15).

박찬영 집사
cross35@hanmail.net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듯이, 시기, 질투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웃과 공동체에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성경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시기로 일생을 다윗을 죽이려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도 시기심에 눈이 멀어 예수님의 일을 사사건건 방해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반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물려갈 때, 예수님을 견제하지 않았습니 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았 습니다. 숫자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 하지도 않았습니 다. 인간적인 감정에 매

몰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 며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감정도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썸통’이라고 하며 독일어로는 ‘샤덴 프로이데(Schadenfreude)’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며 기쁨을 느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 역시 시기, 질투에서 비롯됩니다. 저도 가끔 이런 감정을 느낄 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겼습니 다. 그리고 가족을 떠올렸 습니다. 가족에게는 시기나 질투를 느끼 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를 통해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작은 일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 습니다. 도리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요14:12)고 말씀하셨습니다. 총회장 목사님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자가 돼라.”고 하십니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을 바라는 스승의 마음, 자녀가 잘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결국 사랑에서 비롯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때, 시기과 다툼이 아닌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전소희

